

經驗主義에 있어서 直接的 經驗의 記術에 關한 批判的 研究

梁 文 欽

目 次

第一章 ‘感官與料’ 理論

1. 序 言
2. 幻覺(錯覺)으로부터의 論辨
3. 確實性으로부터의 論辨
4. 感官與料의 本性
5. 感官與料 命題

第二章 B. Russell의 論理的 原子主義와 理想言語

1. 原子命題
2. 論理的 次元에서의 批判
3. 經驗的 次元에서의 批判

第三章 感官與料 命題의 諸性格에 關한 批判

1. 記述의 確實性(正確性)에 關하여
2. 非惟理性, 證據性, 不可修正性에 關하여
3. 結 語

제 1 장 ‘감판여료’ 이론

1. 서 언

우리는 경험적으로 확실한 지식을 가질 수 있는가? 예컨대 내 앞에 놓인 책상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책상이다.”라고 주장할 때, 이 주장은 더 이상의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지식인가? 그렇다면 이 경우에 나는 직접 책상을 보았다고 할 수 있느냐?

직접 보았다면 환각이나 착각의 경우는 어떻게 해명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나는 직접 그 책상을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느 순간, 어느 장소에서 그 책상의 어느 일면만을 본 것이 아니냐? 따라서 내가

책상을 직접 본다는 것은 허위일 수 있고 또 그 주장에는 비경험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外界에 대한 확실하고 不可疑懼的인 항상 眞인 지식을 가지려면 위의 경우와 같은 物的對象 言語로서가 아닌 더 기본적인 언어가 필요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나에게 직접 주어지는 직접적 경험내용을 기술해야 확실하고 不可修正的 명제가 된다.

이렇게 해야 우리는 외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의 근거를 가지게 되고 그러한 지식의 확고한 기반을 닦게 되지 않을까?

나는 감관여론자들이 주장하는 바 이 직접적 경험의 기술은 여하히 가능하며 과연 그러한 지식은 다른 모든 경험적 지식들의 근거가 되며 확실한지 비판적으로 論究하고자 한다.

2. 환각(또는 착각)으로부터의 논변

먼저 우리는 무엇을 직접 파악하느냐 하는 문제부터 고찰해 보자.

환각의 경우 어떤 이가 환각적 책상을 보고 있다고 하자. 그것은 결코 물적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인가? 감관여료론자들은 그것은 그에게 직접 주어진 의식의 私密的(private) 대상 즉 감관여료(sense data, *sensa*)라고 부른다¹⁾. 그래서 내가 동전을 비스듬히 볼 때, 타원형의 현상이 그리고 어떤 때는 둥글게 나타남을 본다. 前者의 경우 나는 타원형의 감관여료를 직접 보고 있고, 後者の 경우 나는 그 동전의 속성이라고 보통 주장되는

1) H.H. Price 는 직접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 다음처럼 말하고 있다: And when I say that it is 'directly' present to my consciousness, I mean that my consciousness of it is not reached by inference, nor by any other intellectual process (such as abstraction or intuitive induction), nor by any passage from sign to significate. 과거의 많은 인식논리는 감관여료를 다루고 있다: 고대와 중세에 있어서는 *sensible species*, J. Locke 와 G. Berkeley 는 *ideas of sensation*, D. Hume 은 *impressions*, Kant 는 *Vorstellung* 이라고 했다. 그리고 19 세기 그들은 *sensations* 로 알려졌었다. 현대에서는 C.D. Broad 의 제창에 따라 *sensa* 라고 불려진다.

H.H. Price, "sense-data" *Readings in Introductory Philosophical Analysis*, J. Hospers (ed.) Routledge & Kegan Paul. London p.300 및 p.312 참조. 감관여료에 대한 현대의 古典書로는 H.H. Price 의 *Perception*, G.E. Moore 의 *Philosophical Studies* 그리고 C.D. Broad 의 *The Mind and Its Place in Nature* 등이 있다.

등근 감각여료를 직접 보고 있다. 그리고 내가 직접 보는 한 그들은 존재한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타원형이나 등근현상이나 꼭 같이 감각여료이고 또 다 같이 존재한다. 그래서 등근 동전이라고 말함으로써 타원형 또는 착각등에서 나타나는 감각여료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논의는 우리가 물적 대상을 직접 파악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래서 물적 대상을 파악하는 경우를 知覺이라고 하면 감각여료의 感覺 없이는 지각은 성립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감각은 직접적이고 지각은 따라서 간접적이다²⁾.

3. 확실성으로부터의 논변

우리는 앞서 환각으로부터 ‘감관여료’가 도입됨을 보았다. 다음은 확실성으로부터 어떻게 그것이 도입되는지 살펴 보자.

내 앞에 일년감이 놓여 있을 때 우리는 많은 것을 의심할 수 있다. 그것이 일년감인지 의심할 수 있다. 그것은 일년감처럼 꾸며진 것인지도 모르고 환각이나 착각의 경우인지도 모른다. 이처럼 의심할 수 있으나 불가의구적인 것이 있다. 그것은 “일년감처럼 보이는 것이 있다.”는 것이다(이 명제는 엄밀히 말해서 “그것은 일년감 처럼 보인다.”에서 추리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것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 또 내가 직접 그것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은 결코 의심할 수 없다³⁾.

4. 감각여료의 본성

그러면 이 감각여료란 어떤 성질의 것인가? 몇 중요한 점들만 살펴보자. 우선, 그것은 사밀적이다. 나의 의식에 직접 나타나는 것은 타인의 그것과도 다르다. 그리고 나의 의식에 나타나는 것은 항상 변하며 특수적, 개별적인 것이다.

다음으로, 따라서, 그것은 유동적 존재이다. 그것은 물적대상도 물적대상의 속성도 아니다. 그러나 감각되는 동안만 존재해도 존재자이므로 그것은 세계의 재산목록에 포함되어야 한다.

2) *The Encyclopedia of Philosophy*, Paul Edwards(ed.) Macmillan and Free Press “Sensa” 참조.

3) H.H. Price, *Ibid.* p.300.

다음으로 중요한 점은 인과적 요소가 배제된다는 것이다. 감관여료는 의계가 起因했다거나 감각자(sentient)가 기인 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표상적 실재론이나 주관적 관념론의 어려움에서 벗어난다. 즉 그들의 起源은 문제되지 않고 오직 주어진 현상만이 문제된다. 따라서 그것은 中性的이다⁴⁾. 그러므로 그 신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5. 감관여료 명제

이처럼 우리가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감관여료 뿐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직접적 경험내용을 기술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명제들은 어떤 성격을 가지게 되는가?

나는 앞서 지각과 감각을 구분하고 또 그 대상이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감관여료론자들은 이 대상에 따라 두 종류의 지식이 있음을 주장한다.

물적대상에 대한 지식과 감관여료에 대한 지식이 그 것이다. 그런데 의식의 직접적 대상인 감관여료의 경험은 우리가 확실하게 포착할 수 있으므로 그 직접적 경험을 기술하는 감관여료명제는 기본명제(basic proposition)이다. 그들은 나아가 이 직접 주어진 것의 기술은 불가수정적이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매우 중요하며 그러나 매우 문제점이 많은 것이다. 내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만일 그 명제가 불가수정적이지 아니라면 물적 대상의 지식의 근거 또는 전제(premise)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기본명제는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표현된다:

“이것은 ϕ 인 것으로 보인다.”(This appears to be ϕ .)

“ ϕ 현상이 있다.”(There is a ϕ appearance)

“ ϕ 감관여료가 있다.”(There is a ϕ sense-datum)

그런데 이 형식들은 의미에 있어서는 동일하다⁵⁾.

4) H.H. Price 는 中性的이란 말에 대해서 다음 처럼 말한다.

Thus the term sense-datum is meant to be *neutral* term. The use of it does not imply the acceptance of any particular theory. The term is meant to stand for something whose existence is indubitable (however fleeting), something from which all theories of perception ought to start, however much they may diverge later. Ibid. p.312.

5) Anthony Quinton, “The Problem of Perception” *Meaning and Knowledge*

예로써 “일년감처럼 보이는 것이 있다(여기, 지금).”고 주장하면, 거기 일년감이 實在했든 안 했든 간에 그는 그 명제를 철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거기 일년감의 실재 여부간에 그때 그가 일년감처럼 보이는 것을 직접 보았다는 것은 眞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가 감관여료 진술을 하는 한, 그 후의 경험에 의해 그것이 僞라고 판명되지 않지만, 물적사물 진술을 하는 한, 위일 수 있다. 따라서 물적 사물의 진술은 감관여료 진술에 입각해야 한다.

그런데 지식은 전통적으로 판단에 있다고 주장되어 왔는데, 이것은 결국 지식은 주장 또는 명제 또는 진술(문장이 아닌)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같다.

그런데 감관여료는 현상만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감관여료 언어는 현상(물적 대상을 지시함이 없이)에 대한 언어이다. 따라서 감관여료 언어란 사물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기술하는 언어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물이 실재하지 않더라도(환상의 경우처럼),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감관여료를 언어로 옮길 수 있다.

그러면 철학적 의미에서 고유명사적인 이 현상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언어로 옮길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로 등장한다.

제 2 장 B. Russell의 논리적 원자주의와 이상언어

1. 원자명제

우선 B. Russell의 논리적 원자주의에 나타난 주장을 고찰해 보자.

내가, 예컨대, 붉은 카드를 보면서 나의 의식에 직접 주어진 것만을 문제삼을 때, “이것은 붉다.”라고 주장하면 여기에는 주목해야 할 두요소가 있다. 하나는 命名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記述하는 것이다⁶⁾. 命名이란, 이

Nagel and Brandt(eds.) Harcourt, Brace & World. p.455 세째 문단.

6) An atomic proposition is one which does mention actual particulars, not merely *describe* them but actually *name* them, and you can only name by means of names.

B. Russell, “The Philosophy of Logical Atomism.” *Readings in Twentieth-century Philosophy*, Alston and Nakhnikian(eds.) The Free Press. p.316.

것을 두고 하는 말이고 記述한다는 것은 일반적 단어 ‘붉다’에 대응한다. 이 일반적 단어가 사용되기 때문에 “이것은 붉다.”라고 말 할 때 오직 순간적 감각여료만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것은 붉다.”라고 할 때 순간적 경험을 이미 내가 가졌던 다른 많은 경험들에 관계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즉 그들은 같은 범주에 속하며 같은 단어로 기술가능 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그리고 또한 주의할 것은 ‘이것’은 논리적 의미에서 고유명사이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경험적으로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의식(attention)의 現前的 對象에 대한 고유명사이기 때문에⁸⁾, 따라서 그에 의하면, ‘世宗’, ‘제주도’ 등은 철학적으로 고유명사가 아니다. 동시에 ‘이것’은 分析不能的 單純者 ‘붉음’에 대한 이름이고 “이것은 붉다.”는 원자명제이다⁹⁾. 이렇게 보면 이 주장은 우리의 일반적 견해와는 판이하다. 왜냐하면 Russell에 있어 ‘이것’은 감각여료에 해당하지만 우리의 일반적 견해란 ‘이것’은 카드전체를 가리키고 의식독립적이며 ‘붉음’은 ‘이것’의 속성이기 때문이다¹⁰⁾. 이 원자명제는 그의 이상언어의 핵심을

이탤릭체는 필자

7) ㉔ The importance of proper names, in the sense of which I am talking, is in the sense of logic, not of daily life. Ibid. p.317.

㉕ A name, in the narrow logical sense of a word whose meaning is a particular, can only be applied to particular with which the speaker is acquainted, because you cannot name anything you are not acquainted with. Ibid. p.316.

8) Ibid. p.333. 둘째 문단.

9) B. Russell에 있어서 원자명제는

a) “이것은 붉다.”와 같은 형식을 가져야 하고

b) 직접 경험과의 관계에서 그 의미를 얻을 수 있는 술의(term)만을 포함하고

c) 더 이상 단순한 것으로 分析될 수 없는 실물(entities)과 관계 되어야 한다.

Paul Edwards(ed.), Ibid. “Russell, B.A. William” 참조.

10) 우리의 일반적 견해는 Aristotle의 철학에서 부분적으로 들어 난다. Aristotle에 있어서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실체인 카드이다. 그리고 ‘붉음’은 속성인 동시에 부수적 형상이다. ‘이것’은 형상과 질료로 되어 있고 질료란 궁극적으로 형상없는(제일) 질료에 귀착하므로 물체를 완전히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형상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체의 형상들은 술어의 위치에서 기술된다.) 그러나 Russell에 있어 ‘이것’은

이론다. 그리고 이 이상언어는 세계가 어떻게 기술되어야 하는가 하는 그의 形而上學의 문제이기도 하다.

Russell은 이상언어와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친숙에 의한 지식’(Knowledge by acquaintance)을 강조한다. 이것은 어떤 언어적 표현이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것을 지시하거나 또는 그렇게 사용되는 다른 표현으로 정의 될 수 있어야 우리가 그 표현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각각의 의미에는 오직 단 하나의 표현만이 있어야 될 뿐 아니라 그것은 일정한 형식의 명제에 위치시켜야 한다. 따라서 논리적 원자주의는 모든 경험적 지식이 원자명제와 그들의 진리함수적 결합형식으로 진술되는 원리에 입각해 있다¹¹⁾.

2. 논리적 차원에서의 비판

Russell의 이론을 다음 처럼 생각해 보자. 내가 붉은 카드를 보면서 “이것은 붉다.”라고 진술할 때 그에 의하면 ‘이것’은 單純者에 대한 고유명사이다. 그러나 ‘이것’의 피지시자가 색깔만이라면 ‘이것’의 피지시자는 이 붉음이다(또는 붉음 1, 붉음 α 라고 가정하자). 따라서 명제 “이것은 붉다.”는 명제 “이 붉음은 붉다.”라고 고쳐 쓸 수 있다. 이러한 명제는 매우 어색한 명제이고 우리에게 어떤 경험적 지식을 제공해 주는지 의심스럽다.

그런데 만일 ‘이것’이 색깔과 퍼져 있음(延長)을 동시에 지적하는 것이면 또는 ‘이것’은 퍼져 있음을 내포한 색깔을 지시하는 것이라면, 이 주장은 명백히 퍼져 있음이 개적인 것, 단순한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그에 依하면 단순자란 단순부호(simple symbol)로서가 아니면 상징되어 질 수 없는 대상이다¹²⁾. 이 전형적인 예가 색깔을 나타내는 언어이다. 그러나 나는 ‘퍼져 있음’도 색깔과 마찬가지로 단순자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퍼져 있음’은 색깔의 경우처럼 전혀 감각적으로만 배울 수 있기 때문이며, 개념적으로도 더 이상 분석불능적이기 때문이다. ‘퍼져 있음’ 자체는 따라서 단순자이다. 그래서 Russell의 이론에 따르면 단순자 ‘붉음’과 단순자 ‘퍼져 있음’은 論

Aristotle과 달리 우리에게 친숙함에 의해 완전히 이해가능한, 또 그것만으로써 이해 가능한 고유명사이다.

11) Ibid. “Russell, B.A. William” 참조. B. Russell, Ibid. p.314 참조.

12) Ibid. p.311 첫째 문단.

理的으로 獨立的이다¹³⁾. 그러므로 “모든 붉은 것은 퍼져 있다.”라는 명제는 그에게는 分析判斷이 아니며 따라서 “이것은 붉다. 그러나 퍼져 있지 않다”라는 주장은 모순이 아니다.

이 점을 더 천착해 보자.

“이것은 붉다”란 명제는 “이것은 색깔이다”라는 명제를 함축한다. 그런데 명제 “이것은 붉다”가 명제 “이것은 퍼져 있다”를 함축하느냐? 이 문제에 관한 한, ‘퍼져 있음’이란 말이 경험적으로 깨끗이 정의 될 수 없기 때문에 미묘한 점이 얽혀 있다. 예컨대 흰 종이 위에 겨우 눈에 보일 만한 점을 찍고서 “이것은 퍼져 있다”라고 주장하면 분명히 여기에는 異論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것은 붉다”와 “이것은 퍼져 있다”라는 두 명제를 사이에 필연적 관계가 있음을 내세운다. 왜냐하면 ‘퍼져 있음’은 곧 분할성을 내포하며 우리가 우리의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것에 대해서 분할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기 때문이다. 흰 종이 위의 조그만 점은, 따라서, 분할성을 주장할 수 있는 한에서 그것은 퍼져 있음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붉음’이라는 일반적 단어로 표현될 수 있는 모든 경우들에 있어서 불가분할성을 주장할 반대 예를 발견할 수 없는 사실이 위의 두 명제 간에 보편적이고 필연적 관계가 성립함을 증명한다. 그러므로 Russell의 이론이 함축하듯이, 두 명제 사이의 논리적 독립성을 주장함은 허위이다.

3. 경험적 차원에서의 비판

나는 ‘이것’이란 고유명사가 우리의 언어체계에서 볼 때 어색한 점이 있음을 지적하였고, 또 논리적 원자주의의 주요한 주장의 하나인 사실들간의 논리적 독립성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비판하였다.

13) ……, each particular that there is in the world does *not* in any way *logically depend upon any other particular*. Each one might happen to be the whole universe; it is a merely empirical fact that this is not the case. There is no reason why you should not have a universe constituting of one particular and nothing else. That is a peculiarity of particulars. Ibid. p.317 둘째 문단, 이탤릭체는 필자.

다음으로 나는 ‘이것’이라는 고유명사가 경험적인 면에서 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헤쳐 보고자 한다. ‘이것’은 Russell에 의하면 순간적으로 변하며 또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애매하다’¹⁴⁾ 그러나 나는 그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도 애매하다고 주장한다: ‘이것’에 대응하는 피지시자가 여럿일 수 있다는 것.

예컨대 “이것은 붉다”란 명제에서 “‘이것’은 무엇을 지시하는가?”라는 물음이 있겠고 여기에는 색깔 또는 ‘퍼져 있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내가 몇 초 전에 보았던 퍼져 있음이다”라는 대답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몇 이유 때문에 불가능하다.

첫째, ‘이것’은 定義에 의해서 순간적 현상내용이므로 내가 이 질문에 대답할 순간의 내용과 조금전의 것과 꼭 같다고 말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대답이 타당하려면 ‘이것’이 다음에 오는 경험내용과 일치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일생동안 동일한 카드를 보면서 ‘이것’이라고 쉬지 않고 말했다고 해서, 그 무수한 ‘이것’들 사이에 동일한 ‘이것’이 있을까?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바꿔보자. 나는 어제 A라는 사람을 만났다. 오늘 다시 만났다. 이 경우 오늘 다시 A를 만났다고 할 수 있는가? 정확히 동일한 A를 만났다고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 나는 우선 ‘같다’라는 말은 엄밀한 의미에 있어서는 기준이 성립해야 하고 그 기준에 의한 비교행위가 있어야 쓸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내가 조금 전에 본 카드의 빨간 질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과 동일한가라는 문제에 있어서; 조금전에 몇 m에서 바라 보았고, 태양광선은 어느 정도 비쳤고, 나의 시력은 얼마였다……라는 조건이 다음 보는 순간과 전혀 동일했다고 해서(같았다고 가정하자) 동일한 ‘이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러나 이들은 하등의 기준도 아니다. 기준은 경험대상과의 관계에서

14) And in that it has a very odd property for a proper name, namely that it seldom meanst he same thing two moments running and does not mean the same thing to the speaker and to the hearer. It is an *ambiguous* proper name, but it is really a proper name all the same. Ibid. p.317 첫 문단.

성립하는 것이다. t_1 에서의 감관여료를 x 라 하고 t_2 에서의 감관여료를 y 라 할 때 x 와 y 가 동일한 것이 되려면 x 의 성질 $\alpha, \beta, \gamma, \dots$ 가 y 에서 다시 발견되어야 한다. 만일 이것이 가능하면 질적으로 그리고 수에 있어서도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요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의미에서는, 질적인 면에서도 相異하고 수적인 면에서도 상이하다. 그리고, 따라서, 기준을 설정해 보아도 경험적으로 그것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순간적 감관여료는 그것이 나타나 보이는 것에 불과하고 그 이상의 어떤 것도 아니다.¹⁵⁾라는 주장은 타당하다.

둘째로는 Russell 자신의 논리에 입각해서이다. 그에 의하면 기술(description)과 고유명사는 신분이나 기능이 서로 다르다.

Russell에 있어 고유명사의 의미는 그 의미의 담지자인 대상이다. 따라서 '이것'의 의미는 내가 친숙한 대상이다. 그러나 기술은 그 자체로서는 의미가 없고(즉 기술은 직접적으로 대상을 지시하지 않는다) 복합적 부호들로서 다른 부호와의 문맥에서만 그 의미가 정해지기 때문이다¹⁶⁾.

따라서 둘째의 난점에서 벗어나려면 G. Frege의 이론처럼 고유명사의 의미가 기술과 같다는 것을 전제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Frege에 있어서는 모든 고유명사는 반드시 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반드시 피지시자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¹⁷⁾.

15) Winston, H.F. Barnes. "The Myth of Sense-data", *Meaning and Knowledge* p. 586.

16) "Nixon is the king of the U.S.A."란 명제에서 Nixon은 그 자체만으로서 피지시자가 있으므로 의미를 가진다(Russell에 있어서 의미는 그 의미의 담지자이다). 그러나 the king of the U.S.A는 그 자체만으로서 가리키는 것이 없다. 그 자체만으로서 의미가 없으므로 그것이 의미를 가지려면 다른 상징어(예컨대 Nixon)와 함께 쓴 문맥에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지시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에서 기술(description)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쓸 수 있다: the extended thing which I now point.
B. Russell, *Ibid.* p. 349-359 참조.

17) Frege에 의하면 "Nixon is the king of the U.S.A."에서 Nixon의 의미(sense)는 기술(description)이고 그 피지시자는 그 사람 자신이다. 또 그에 의하면 기술도 Nixon처럼 반드시 sense를 가진다(따라서 Frege에 있어서는 기술도 고유명사이다). B. Russell의 'the description theory'는 Frege, Meinong 등과 같은 철학자들의 이론의 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제창되었었다. Frege는 다음처럼 말한다: A proper name(word, sign, sign-compound, expression)

이와 같은 이유로, “‘이것’은 무엇을 지시하는가?”라는 물음에는 필연적으로 “이것은 α 이다”라는 또 다른 고유명사를 사용함으로써만 가능하다.

제장 감관여로 명제의 제 성격에 관한 비판

1. 기술의 확실성(정확성)에 관하여

나는 이제 직접적 경험을 기술함에 있어 그 기술내용이 확실한지 또는 정확한 것인지 따져 보겠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나는 책상위를 보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한 가운데는 한글사전이 있고 그 위에는 잉크병과 만년필이 있다”

나의 이와 같은 기술에 대해 옆에 있던 A가 나에게 다음 처럼 물었다.

만년필은 분명히 2개 있는데 왜 하나만 보았다고 하는가?

사전 오른쪽에 연필이 있었는데 보지 못했는가?

나는 이러한 질문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기술함에도 자신이 없단 말인가! 그러나 이런 경우 책상위를 다시 봄으로써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없으므로(단일 다시 보면 그것은 다른 경험이다) 나는 오직 나의 기억에 의해서만 그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는 ‘기억의 불가오류성’이 필연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나는 인간의 기억이 확실하다는 주장이 있다면 그것은 무시할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위와 같은 기술과는 달리 다음과 같은 방식도 있을 것이다.

“한 가운데는 한글사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위에는 잉크병과 만년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나는 위의 기술이 정확 또는 확실하려면 그 전제조건 중의 하나는 “내가 본 것은 3개이다”라고 주장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 전제조건은 위의 기술내용에서 단지 연역한 결과여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문제되고 있는 것은 경험내용 자체이고 또 경험기술에 있어서 우리는 정확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의 기술내

expresses its sense, and designates or signifies its nominatum. We let a *sign* express its sense and *designate* its nominatum. G. Frege, “On sense and Nominatum”, Ibid, p.69~78 참조.

용과 그 전제조건과의 관계는 순환적 답변을 함으로써만 성립하는 불합리성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그리고 나는 나아가 위와 같은 기술방식은 다음과 같은 방식과 비교해 볼 때 그 정확성 또는 확실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 하거나 막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물의 전기분해시에 일어나는 과정을 정확히 기술하라”와 “갑신정변에 대하여 정확히 아는 바를 기술하라”는 경우를 생각해 보라.

우리는 이 경우들에 있어서 그 정확성 또는 확실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조건들을 정할 수 있다. 예컨대 前者의 경우에는 電子의 이동, 에너지 상태의 변화등을 그리고 後者の 경우에는 원인, 경과, 결과를 진술하고 결과에는 한성조약 체결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하는 것 따위이다.

그런데 직접적 경험내용의 기술에는 이런 ‘조건설정’이 가능하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언급된 바처럼 직접적 경험내용은 사밀적이고 유동적이므로 그것은 객관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2. 비추리성, 증거성, 불가수정성에 관하여

그리고 “그것은 한글사전인 것으로 보인다”라는 명제가 하등의 추리과정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오직 직접적 경험내용의 진술이라는 사실을 들어 불가 의구적 확실성을 주장하는 점에 대해 비판하겠다.

Goethe의 詩 들장미를 슈베르트와 베르너가 각각 작곡한 것을 다른 두 Soprano 가수가 불렀다. 이 두 곡을 여러번 들었지만 잘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느 때에 슈베르트 곡을 듣고 그것이 들장미 곡인 줄은 알면서도 “이것은 누구의 곡인가?”라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줄 수 없는(자신이 없기 때문에) 상황을 생각해 보라. 이질문에 前에 두 곡을 들었을 때 兩者를 區別하였던 기준을 적용시켜 “그것은 슈베르트 곡으로 보인다.”라고 대답하였다. 우리는 이 때, “나는 들장미곡을 듣고 있다”라는 것을 기본 명제로 삼을 수 있다. 또는 이 명제가 확실한 상황을 상정할 수 있다. 그런데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은 분명히 추리과정이다. 따라서 그 결론 “그것은 슈베르트 곡으로 보인다”라는 것은 추리를 전제한 것이다.

다른 예를 들어 보자.

“이것은 붉게 보인다”(This appears to be red.)……(A)

“이것은 일년감인 것처럼 보인다”(This appears to be a tomato.)……(B)

명제 A가 성립하는 경우란 경험내용을 명확히 기술할 수 없는 경우와 명확히 기술할 수 있는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는

i) 무엇이든 있다(또는 어떤 종류의 색깔이 있다)

ii) 나는 불명확한 상황속에 있다.

iii) 명제 A

라고 고쳐 생각해 보자.

예로써 붉은색인지 분홍색인지 잘 구별하지 못하게 멀리서 색깔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무슨 색깔인지 명확히 말해 보라”고 요구했을 때 물론 그런 답변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i)의 조건은 의식하고 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명제 A도 성립하지 않을 것이다. 동시에 그가 명확한 대답을 못하는 이유는 ii)의 조건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경우 명제 A가 성립한다고 하면 명제 A는 추리를 거친 것이 확실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ii)의 조건을 의식하고 있지 않는데도, 따라서 명확한 답변을 줄 수 있는데도 명제 A를 내세우면, 그것은 “이것은 붉다”라는 명제를 의미한다. 그런데도 정언판단의 경우와 같지 않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실재를 왜곡하는 경우이던가 궁극적으로 “이것은 붉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다(註 18 참조).

명제 B도 그 자체 추리된 것이고 따라서 기본명제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왜 일년감인 것처럼 보이느냐?”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소위 감관여료 명제는 비추리 적이고 직접적 경험내용 진술이라는 주장의 허점이 들어난다. 따라서 그것이 ‘증거’ 명제가 될 수 없음도 동시에 입증된다¹⁸⁾.

18) ‘붉게 보인다’라는 개념은, 즉 무엇이 붉게 보인다고 파악하는 능력은 ‘붉다’라는 개념을 전제한다(따라서 ‘이것은 붉게 보인다.’라는 형식의 명제가 기본 명제가 될 수 없다.). 예를 들자. 넥타이 商에 붉은 넥타이를 사러 온

J.L. Austin 은 증거(evidence)라는 개념이 誤用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예컨대 내가 어제 A 라는 사람이 B 라는 사람을 살해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하자. 나는 이 때 그 사건의 증인으로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나 “A 가 B 를 죽였다”라는 나의 주장의 증거는 가지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직접 목격 했기 때문에 A 의 범죄에 대한 증거는 가지고 있으나 그 명제에 대한 증거로서 ‘감관여료’ 명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증거라는 개념의 오용이다.

그리고 그에 의하면 ‘증거’에 해당하는 특정한 진술들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말은 상황함수적(situation-functional)으로 쓰인다. 예로써, 내가 집을 지었는데 등글게 지었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이 집은 등글게 보인다.”라고 말할 수 있고, 대부분의 개가 뼈를 먹는다는 것을 근거로 “이 개도 뼈를 먹을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직접적 경험의 기술은 불가수정적이라는 주장을 따져 보자.

사람이 푸른 전등아래서 보라색으로 보이는 넥타이를 주인이 붉은 넥타이라고 하면서 말하자, 구매인은 이것은 붉지 않다고 말했다. 주인이 그래도 붉은 넥타이라고 말하자 구매인이 “왜, 그럼, 이 넥타이는 보라색으로 보이느냐?”고 물었다. 이에 주인은 “이 넥타이는 붉다. 그러나 이리이러한 불빛에서는 보라색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래도 구매인은 믿기 어려워 바깥으로 가지고 나왔다. “이 경우는 왜 붉게 보이느냐?”고 묻자, 그는 “이것은 붉기 때문이다. 태양빛이 비칠 때는 넥타이 원래의 색으로 보이는 법이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러한 경우를 W. Sellars 는 다음 처럼 요약해 필연적 진리(a necessary truth)라고 말하고 있다.

“X is red \equiv X looks red to standard observers in standard conditions.” (이것은 왼쪽 항을 오른 쪽항으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필연적 진리라고 하는 것은 ‘표준조건’이란 사물의 모습이 그 모습대로 나타나 보이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국 ‘붉다’라는 개념을 전제로 해서 그 사물이 이리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보이느냐가 말할 수 있게 된다. 또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자. 명제 “This appears to be red.”에서 예컨대 대법정에서 “보증하느냐, 보증하지 않느냐”(그것이 붉었는지에 대해서)하는 것이 문제될 때 위의 명제가 단순히 “This merely looks red to me.”라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결국 붉게 보였다는 사실효차 부인하기에 이를 수 밖에 없다.

“나는 그것이 붉음을 본다.”라는 자기 경험의 내용을 보증하는 경우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I see that ‘P’(P는 명제)에서 ‘I see’는 보증어(endorsment word)이다.

W. Sellars, *Science, Perception and Reality*, Routledge and Kegan Paul. p.140~149 참조.

A.J. Ayer 에 의하면 “이것은 붉게 보인다”와 같은 주장에 대해 우리가 수정해야 할 점이 있다면 그 경우란 우리가 대상을 확실히 파악하고 있는데 빨강 혹은 녹색 등과 같은 술어가 어느 때에 사용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이다(물론 거짓말, 헛놀림의 실수, 펜놀림의 실수, 게으름, 부주의 등을 빼고). 이것은 매우 그럴듯한 주장인 것 같지만 그만큼 치졸한 주장이다. 그 단적인 예로서 색깔의 적용이 아니라 그 대상자체가 어떤 색깔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기에 말이다.

불가수정적이라는 것에 대한 Austin 의 주장을 보자. 결국 Ayer 에 따르면 그 자체 불가수정적 특정명제들이 있는 것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예로서 아침에 일어나 몸을 씻고 가벼운 운동을 한 다음 식사하면서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것은 김치이다”라고 말 할 때, 이것은 불가수정적 명제이다.

우리는 두 종류의 명제들 사이에 엄격한 구별이 있지 않으며 따라서 그 두 종류의 명제가 어떤 상황속에서 쓰여지는가 하는 것이 문제되는 것을 보았다¹⁹⁾.

3. 결 어

나는 직접적 경험의 기술에 있어, 특히 B. Russell 의 논리적 원자주의에 있어서 우리의 언어체계상으로 본 문제점과 이상언어의 핵심인 사실간의 논리적 독립성의 문제점 그리고 그 완전언어가 경험세계에 사용될 때의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그 직접적 경험기술들이 필연적으로 가져야 할 여러 성격들의 불합리성을 파헤침으로써 간접적으로 우리의 세계가 나의 감관여료에 기반될 수 없음을 시사하였다.

주요 참고 서적 및 논문들

○ Moore, G.E., *Philosophical Studies*,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22.

19) J.L. Austin, “Some Objections to Empiricist Epistemology” *Meaning and Knowledge*, p.427~435 참조.

그는 이 논문에서 ‘물체대상언어’가 증거에 의해 支持되거나 그 증거에 기초되어야 하고, 검증의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完結的으로 검증불가능하다는 이론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다.

- Broad, C.D., *The Mind and its Place in natur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section B. 1925.
- Hospers, John, *An introduction to Philosophical Analysi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67.
- Alston, William P. and Nakhnikian, George(eds.) *Readings in Twentieth-century Philosophy*, New York, Free Press, Part VII 1963.
- Nagel and Brandt(eds.) *Meaning and Knowledge* (Systematic readings in epistemology), Harcourt, Brace & World, INC. 1965.

이 책에서 참고한 논문을 소개 하면:

- ① G. Frege, "On Sense and Nominatum"
- ② B. Russell, "On denoting"
- ③ P. Strawson, "On Referring"
- ④ Quine "A dogma of Empiricism"
- ⑤ B. Russell "Epistemological Order and the Premises of Knowledge"
- ⑥ J.L. Austin "Some Objections to Empiricist Epistemology"
- ⑦ A. Quinton "The Problems of Perception"
- ⑧ P. Henle "On the Certainty of Empirical Statements"
- ⑨ R. Chisholm "The Problem of Empiricism"
- ⑩ W. Barnes "The Myth of Sense-Data"
- ⑪ C.H. Whiteley "Physical Objects"
- W. Sellars, *Science, Perception and Realit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제 5 장 1963.
- Hospers, John, *Readings in Introductory Philosophical Analysis*,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68.

이 책에서 참고한 논문들은 아래와 한다.

- ① N. Malcolm, "Certainty and Empirical Statements"
- ② J. Locke "Ideas and Qualities"
- ③ G. Berkeley "Idealism"
- ④ A.J. Ayer "Phenomenalism"
- ⑤ H.H. Price "Sense-data"
- Alston, William P(ed.) *The Problems of Philosophy*, Boston, Allyn and Bacon, Part VI 1967.
- Alston, William P., *Philosophy of language*,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64.

Résumé

A Critical Study on the description of the Direct
Experience in the Empiricism

Moon-heum Yang

Generally we think that the problem of perception is to give an account of the relationship of sense-experience to material objects. As for the relationship, it is a matter of showing how beliefs about material objects can be established or supported by what we know in immediate or direct experience. For, only our knowledge of experience is direct, immediate and certain or indubitable; what we claim to know about material objects is indirect, by inference from what we know directly. Consequently if our beliefs about objects are to have any solid or secure foundation (rock-bottom), it must consist in what we know directly by acquaintance, about sense-data.

My purpose in this paper is to refute this 'sense-data' theory, especially in the light of the descriptions of the experience. And then my target contains Russell's Ideal Language in Logical Atomism. Having examined in the light of logic and experience, I found many difficulties in it. Next it contains the characteristics that basic statements must have. I argued that the certainty of the basic statement is false or misleading, the non-inference of it is not reasonable, and, with Austin, the basic statement can't be the evidence of the knowledge about material objects.